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17】

전란과 독재하의 수난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탄생한 뒤에도 김시현은 남북간의 평화적 민족통일 노선을 견지하며 그와 같은 이념의 단체인 민족자주연맹에서 활동하였다. 1949년 2월 초에 그는 동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원세훈元世勳、송남헌宋南憲 등과 함께 중앙상무위원의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당시 대두되고 있던 남북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민족대동단결을 추진키 위한 운동이 논의되었다. 이에 남북한에 각기의 정부가 수립된 현실에서 그 인식과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한 격론끝에 민족자주연맹의 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당이나 또는 협의회의 구성에 서로가 협조할 것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이 민족자주연맹은 결사체로서 실체만 있을 뿐 남북한의 어느쪽으로부터도 소외가 되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낼만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정계에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이 창당되자 점차 중도노선에서 한계를 느낀 김시현이 그쪽에 참여하게 되었다.

민주국민당은 김시현이 민족자주연맹의 중앙집행위에서 전형위원이 되던 무렵인 1949년 2월 10일에 창당되었다. 이 민주국민당은 원래 제헌국회에서 소장파로 활동하던 이들과 그 후의 이승만정권에서 소외되어 형세가 약화되던 한국민주당이 그 당세의 확장을 위해 새로이 결성하게 된 정당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민주국민당은 약칭을 민국당으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민주당 외에 대한국민당의 신익희申翼熙와 대동청년단의 이청천李靑天 세력이 참여했다. 이에 이 정당은 그 세력이 괄목할만큼 큰 규모가 되었다. 여기에 김시현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측정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1949년 9월에 김시현은 민주국민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총무부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1949년 9월 3일자의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신문自由新聞의 1949년 10월 22일자 보도를 보면 김시현이 이때에 열린 민주국민당의 전당대회에서 김효석金孝錫、윤보선尹潽善、허정許政、장기영張其永、김도연金度演、백상규白象奎、윤병호尹炳晧、방주혁方周赫 등과 함께 고문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민국당에 참여한 후에도 김시현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는 드러나는 것이 없다.

김시현이 민족자주연맹을 탈퇴하고 민주국민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 동기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다. 당시 정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그의 현실 인식 변화가 작용했으리라는 것이 후세인의 짐작이다. 그같은 정국의 변화는 1949년의 6월 이전과 이후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49년 6월은 이승만정권의 총공세가 있었던 시기로서 이전과 이후에 많은 정국의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6월 이전의 정국은 대략 이러하였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군인반란사건 및 좌익 무장게릴라의 활동, 그리고 중도세력의 통일운동 등으로 영향을 받아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면서 미군정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한 1948년 12월에 국제연합은 그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한 지역에서 구성되어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지게 된 대한민국 정부를 이 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함을 선언했다. 혼란이 거듭되던 정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이같은 결정은 좌익 세력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도 세력의 진로에는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편 민족자주연맹을 이끌고 있던 김규식이 이에 대해 국제연합의 한국 정부 승인이 기뻐할 일이며 정부와 유엔에 파견된 한국대표단의 활동 및 미국 등 우방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김규식은 본래부터 정부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정부가 승인된 이상 현실을 직시하면서 완전한 독립과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태도도 밝혔다. 이러한 김규식의 입장은 남한 정부를 지지하는 원칙 아래 통일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세력의 이같은 인식변화는 정치활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민족자주연맹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 연맹 내부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어 민주국민당의 창당을 앞두고는 신익희와 이청천 뿐만 아니라 한국민주당 韓國民主黨의 서상일徐相日도 김규식을 찾아와 그 창당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규식은 이 요청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연맹의 간부들과 상의하여 합동을 단행할 것이며 만일 연맹 전체의 합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김규식 혼자라도 합동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에 김시현은 민주국민당측 김성수金性洙의 부탁을 받고 새로 창당되는 이 당의 당수黨首로 김규식을 옹립하려는 거중조정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족자주연맹은 그들이 민주국민당에 참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표했다. 그렇게 공식 부인함에도 그러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돌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든 김규식과 절친한 사이인 김시현이 그와 같은 김규식의 내심과 인식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한편 1949년 6월부터 김시현이 민주국민당에 참여한 9월까지의 정국은 이승만정권의 극우반공 공세가 펼쳐지던 시기였다. 6월말에 미군 철수 완료를 앞두고 국회의 프락치사건이 터지고 친일극우세력이 백주에 반민특위反民特委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에 김구 암살과 국민보도연맹國民補導聯盟의 결성 등이 연이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로서 1948년 9월에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해 제헌국회가 설치한 특별기관이며 일본에 협력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조사 처벌하려는 곳이었다. 이 기관이 1949년 1월 12일에 각도 조사부의 책임자까지 임명해 구성을 끝내고 업무를 착수했으나 경찰과 관료사회에 들어차 있는 일제협력자 등이 일으키는 여론이 비등하고 정부의 고의적 비협조 내지는 방해로 지지부진하다가 정권의 사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극우세력의 습격까지 받아 1949년 6월에 기능을 상실했다가 8월 22일에는 정식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특히 이러한 상항에 대해 김시현의 분노는 컸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는 인식하고 남았을 것이다. 또한 김구의 서거는 중도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사건으로 이승만정권의 전횡에 유일하게 맞서 대응하던 국회내의 소장파 의원들이 대거 구속됨으로써 국회의 영향력도 급속히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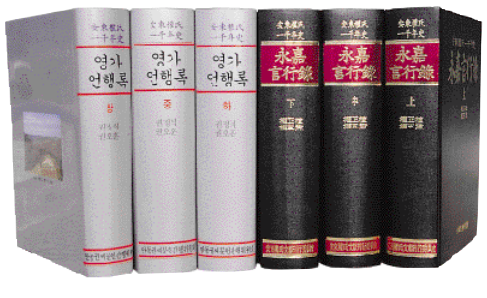
국회프락치사건은 1949년 6월에 터진 것으로 국회의 김약수金若水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동성회同成會 소속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南勞黨의 대남정치공작대에 의한 7원칙의 실현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었다. 그 7원칙이라는 것은 외국군대의 완전철수, 남북한의 정치범 석방 및 남북 정당단체 대표의 정치회의를 열자는 것 등으로 그리 위험하거나 격렬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들이 남로당의 프락치Fraction로서 노일환盧鎰煥、이문원李文源의 지휘를 받아 반미反美와 반정부 활동을 해오다가 프락치 활동을 한 보고서가 6월 16일에 발견되어 그 전모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반공검사反共檢事 오제도吳制道가 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이었다. 김약수는 1892년에 동래東萊에서 나서 휘문의숙과 경성공업을 거쳐 중국 남경南京의 금릉대金陵大를 다녔고 김원봉金元鳳 등과 같이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하였다. 3、1운동 후 귀국해 조선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를 조직했다 체포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日本大 사회과에 다니면서 무정부주의 흑도회黑濤會와 북성회北星會

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永嘉言行錄

權正植 · 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원



一擧에 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 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
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
詩文과金石文 · 狀記文 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0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장의 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총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